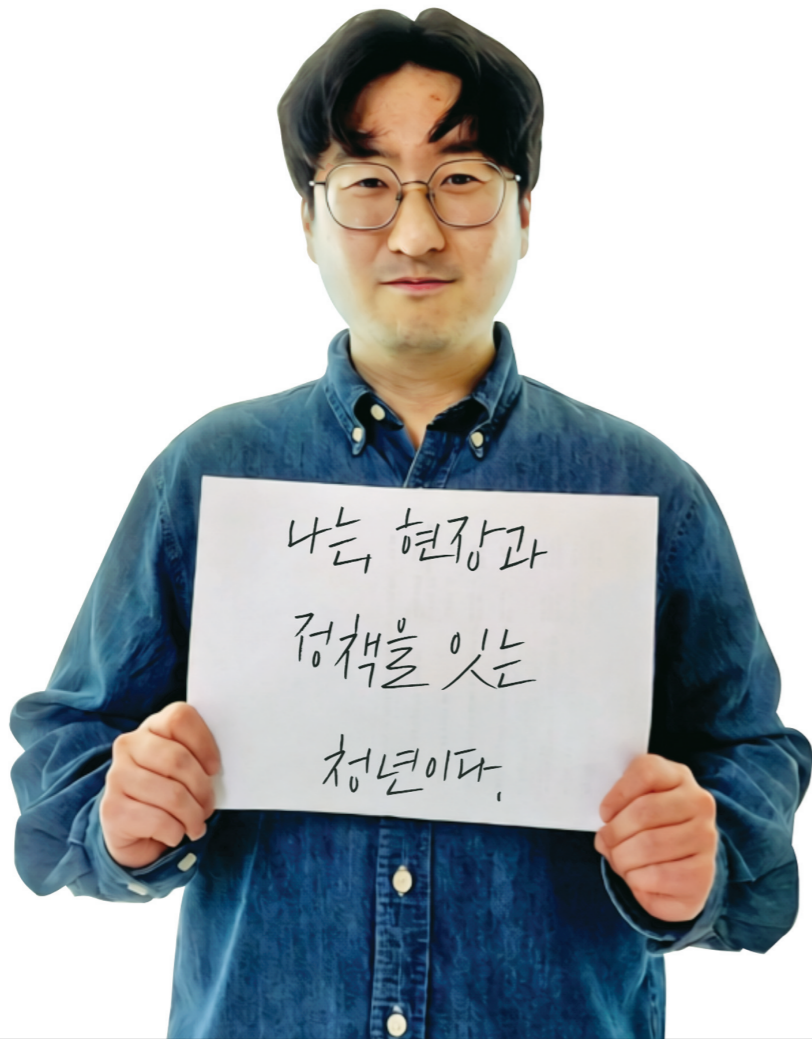


“혼자 고민하면 실패, 함께 외치면 정책이 됩니다”



임경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다차원적 불평등’ 너머 청년의 골든타임을 찾아서 사회적 자립서 겪는 좌절 ‘정책 안전망’으로 보듬어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복지라는 렌즈를 통해 청년의 삶을 들여다보고, 정책이라는 도구로 그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임경민입니다. 현재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신취약계층(가족돌봄청년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실무 맡고 있고, 동시에 전남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현장과 정책을 잇는 복지 행정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민간 복지기관에서의 실무 경험, 그리고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광주청년넷), 보건복지부 2030자문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쌓은 정책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넘어 ‘청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의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광주청년넷은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연대체입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 정책을 진단하고, 현안을 공론화하며,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청년정책의 모니터링과 의제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청년센터와 함께 ‘청년, 다시 봄’이라는 연속 포럼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노동 환경의 변화를 깊이 있게 다루는 데 참여했습니다. 단 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책 고도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년 다시 봄’ 포럼 이끈 정책의 마당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사회복지행정가로서 지켜본 많은 청년이 실업·고립·부채 등의 문제로 무너지고 있었지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미비했습니다. ‘왜 청년은 문제가 터진 뒤에야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저를 토론의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가진 사회복지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보격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돕고 싶어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첫째는 3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저희 단체가 청년 분야를 맡아 ‘청년의 다차원적 불평등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을 공유한 활동입니다. 주제 선정부터 발제자 섭외, 행사 진행(사회)까지 경험하며 많은 사람과 청년의 단순 경제적 빈곤이 아닌 다차원적 불평등에 대해 생각을 공유할



청년네트워크 활동 모습.

수 있었던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들쭉날쭉한 ‘청년 다시 봄’ 행사에서 조기현 작가를 연사로 모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 문제를 공유했던 경험입니다.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에 대한 문제, 사회보장에서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 등 해당 문제를 깊게 조망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청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위기아동청년법’의 안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를 선언적으로 담고 있지만,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의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성인이지만 원가정에서 본인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는, 즉 사회적 자립을 이행하는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겪는 좌절이 장기화 되면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이들과 제도권 밖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 필요한 건 시혜 아닌 권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행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품질 고도화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진행 중인 박사 과정을 잘 마무리해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전문가’로서 광주가 청년을 포함한 시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도시가 되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광주청년넷 활동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연대체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정책 자문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면 ‘실패’로 남을 수 있지만, 함께 목소리를 내면 ‘의제’가 되고 ‘정책’이 됩니다. 광주청년넷과 같은 단체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참여할 때 우리 삶을 지키는 변화는 시작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정책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



청년네트워크 활동 모습.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